

완도군, 국비 1872억 투입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확정

완도군은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완도수목원은 지난해 10월 산림청에서 구상한 수목원 조성 및 운영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으로부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대상지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후 올해 산림청에서 실시된 '국립난대수목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 결과에서 종합 94점, 예상 방문객 35만 명, B/C 0.84로 평가되어 지난 12월 24일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최종 선정됐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은 올해 실시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5년 간 전액 국비 1,872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완도수목원, 산림청 평가단 '적격' 판정 받아 연 35만여 명 관광객 1조2천여억 경제 효과

완도수목원 400ha의 부지에 전시·관람지구, 서비스·교육지구, 보존·복원지구, 연구·지원지구, 배후지원시설 등 5개 권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방문자 센터와 사계절 전시 온실, 기후연구시설(파이토타론), 연구동, 교육·서비스동, 주제 전시원, 모노레일 등을 갖춘 계획이다.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조성되면 연중 35만여 명의 관광객 유치로 1조 2천여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1만 7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완도군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과 함께 산림과 바다를 아우르는 치유의 중심지로 도약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100년 먹거리 사업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국립난대수목원은 산림청 제4차 수목원진흥계획에 따라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여 기후변화 및 식물상 변화 연구 등 난·아열대 산림생물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완도군은 전국 난대림 면적의 35%(3,456ha)를 차지하며, 지자체 중 가장 넓은 난대림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대상지인 완도수목원은 붉가시나무와 구실잣밤나무, 황칠나무, 동백나무 등 770여 종의 난대 산림식물이 자생하고 있어 난대림 원시 생태계를 잘 보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국립난대수목원이 완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완도군민과 향우 등 총 11만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는 등 그동안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완도수목원이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완도수목원의 가치를 전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평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국비 1872억 투입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수목원 전경

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국비 1872억 투입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완도=김광수 기자

진도군, 토지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토지관리·지적 등 토지행정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



진도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0 토지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군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확하고 빠른 지적측량성과 제공, 지적민원 서비스 개선,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부동산산 실거래가 신고, 도로명주소 사용률,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토지행정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다.

이번 평가는 토지관리, 지적, 공간정보, 지적재조사 등 4개 분야에 대해 우수사례를 공유, 양질의 토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우수기관 선정은 신속·정확한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이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토지행정 서비스의 제공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강진군 "시설하우스 한파·폭설 피해 없도록 조심하세요"

강진군농업기술센터, 특별관리 당부 나서

강진군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한파 우려에 농작물과 시설하우스에 대한 특별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인 요즘은 농작물 재배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농민들에게는 걱정이 앞서는 시기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 때문에 밤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는 등 한파로 작물 및 시설피해가 나오기 쉽기 때문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 작물

은 얼어죽거나 뿌리 저온에 따라 양분 부족 현상을 겪게 된다.

또한 하우스 내부 결로를 비롯해 균에 의한 병이 만연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하우스 안으로 들어오는 냉기를 철저히 막고 보온 또는 가온시설을 점검해 정확히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병 감염이 우려되는 농가는 예방적으로 방제를 실시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눈이 많이 내리면 하우스 내부를 덮어서 비닐 위에 쌓이는 눈을 녹이고 오전 일찍 개폐기 틀에 쌓인 눈

을 제거해 개폐 장치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하우스 내부에 설치된 관수장치나 배수장치의 동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온풍기의 무리한 가동에 따라 화재나 가스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춘기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강진군은 온화한 기후로 겨울철 농작물 시설재배에 유리한 점이 있으나 갑자기 찾아오는 한파에 생각지 못한 피해가 올 수 있다"면서 "농작물과 재배시설 재해가 없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도로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 1단계 사업' 완료

총 19억2천만원 투입

장흥군은 장흥읍 일원의 도로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9억2천만 원(국비 60%)을 투입해 장흥읍 도시 계획 지역의 도로 88.39km, 상수도 72.26km, 하수도 107.53km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완료했다.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도로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물(상·하수도 등)의 위치 정보를 DB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각종 안전사고와 재산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산화 작업을 통해 구축한 데이터는 장흥군 공간정보 통합 활용 플랫폼 및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각종 시설물 관리, 도로 굴착 및 각종 재해·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장흥=김도영 기자

생활방역강화 통한 49건 공모

해남군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해 해남군민의 실질적인 방역대책을 발굴하기 위한 해남형 생활방역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했다.

부서별 자체보고회 등을 통해 총 91건의 아이디어를 발굴, 선별된 49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2차 부서 검토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제안 내용으로는 ▲승강기 승차인원 제한을 위한 바닥발판 스티커 부착 ▲자동 수전기 시스템 도입 ▲다중이용시설 대신 소독 지원 ▲공공기관 시간별 환기시스템 도입 ▲다중이용시설 출입시스템 개선 등 생활 방역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가 다수 제출됐다.

또한 ▲우수방역업체 업소 지원 ▲음식점, 종교시설 비닐 커튼 칸막이 설치 지원, ▲소독방역매트 설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들도 발굴됐다.

해남군은 "코로나19로부터 군민들을 지키기 위한 생활방역 강화와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남군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직원 1:1 전담제를 실시, 관내 위생업소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개인별 마스크 지급과 음식점, 숙박업소에 출입명부 및 손 소독제를 배부하는 등 생활방역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